

직	성명	전화
팀장	신동화	6586
팀원	이민재	6594

2009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조사 결과

(2009. 7)

차례

【요약】

I. 2009년 하반기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	1
1.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	1
2.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	4
II. 2009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용도 및 자금조달처	5
1. 설비투자 용도 전망	5
2. 설비투자 자금조달처 전망	6
III. 2009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여건	7
1.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	7
2. 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시 애로사항	8
3.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	9
4.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	10
부록 : 조사개요	11

기은경제연구소
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요약

- 2009년 하반기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할 전망
 - 금년도 설비투자 실시(예정) 업체비율은 29.1%로 전년도(42.3%)에 비해 크게 하락
 -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 설비투자(25.3%)가 중기업(42.8%)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할 전망
 - 하반기 설비투자 예정업체(18.2%)는 상반기 실시업체(25.4%)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

중소기업 설비투자 업체비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		차이 (2009년- 2008년)	
					상반기 (잠정)	하반기 (전망)	년간 (전망)		
중소기업	39.0	39.5	41.4	42.3	25.4	18.2	29.1	-13.2	
규모별	소기업	34.8	35.3	38.0	36.4	21.7	14.5	25.3	-11.1
	중기업	69.3	71.9	68.6	69.2	38.6	31.6	42.8	-26.4

- 업종별로는 상반기대비 거의 모든 업종의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할 전망이며, 특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, 인쇄 및 기록매체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

- 2009년도 설비투자 용도를 보면, 실시(예정) 업체 중 70.5%는 기계장치, 52.3%는 공구·비품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, 운송장비(27.4%), 건물 및 구조물(23.5%), 공장용지(8.1%)에도 투자할 전망
 -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투자는 전년도 대비 2.9%p 상승할 것으로 조사
- 설비투자를 실시(예정)한 업체의 자금 조달방법은 90.6%가 내부자금을, 28%는 차입자금을 이용할 것으로 응답
 - 내부자금을 이용할 업체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1.2%p 감소할 예정이며, 차입금을 이용할 업체의 비율은 3.3%p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하반기 차입금 중 은행대출을 이용할 업체의 비율은 71.4%로 조사
- 설비투자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할 때 발생하는 애로점으로는 애로사항 없음(30.0%), 높은 대출금리(29.6%), 대출한도부족(16.8%) 순으로 응답
 - 경기침체기의 저금리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(14.5%p)는 감소하였으며,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애로사항 없음(0.6%p)은 소폭 증가
- 설비투자 확대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
 - 설비투자 확대시점에 대해서는 당분간 확대하기 어려움(44.3%), 내년 하반기(14.2%) 등의 순으로 조사
 - 2009년도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전망도 작년수준(35.6%) 혹은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것(31.3%)으로 전망하는 비율의 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확대될 것으로 답변한 업체는 4.5% 머물러 부정적

1. 2009년 하반기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

1.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

- 2009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실시(예정) 업체비율은 전년도 대비 13.2%p 감소한 29.1%로 나타나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
 - 하반기에 설비투자예정 업체비율은 18.2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도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극심한 침체가 예상
 - 2009년 설비투자 실시 업체비율 전망치(29.1%)는 최근 수년간의 추세(40%내외)와 비교하여 최저수준을 기록
 - 규모별 설비투자 전망은 소기업(25.3%), 중기업(42.8%)은 모두 악화될 전망
 - 전년도 대비 소기업은 3.6%p, 중기업의 경우 4.2%p 감소할 전망
 - 산업별로 보면 경공업(26.7%), 중화학공업(30.6%) 모두 악화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의 설비투자가 더 부진할 전망(26.4%p 감소)
 - 형태별로 보면, 가공조립부문 설비투자가 전년도 대비 가장 부진할 가능성(16.1%p 감소)

중소기업 설비투자 실시 업체비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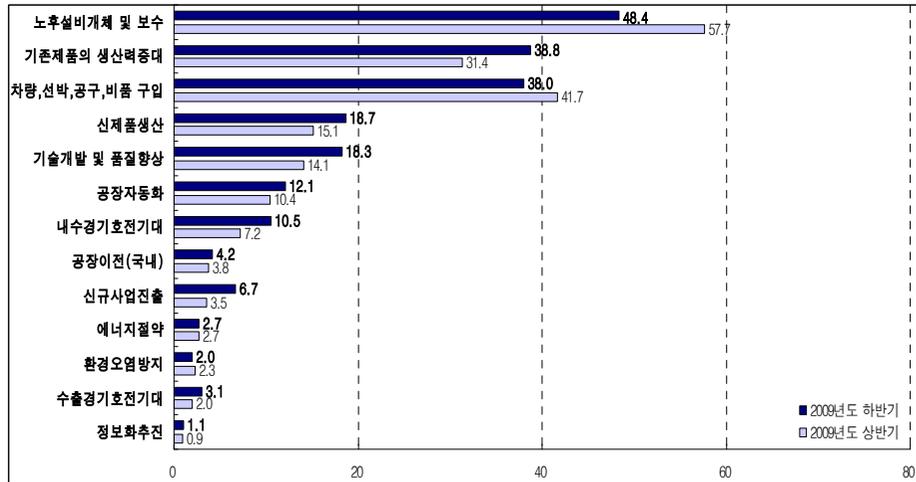
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		차이 (2009년- 2008년)	
					상반기 (실적)	하반기 (전망)	년간 (전망)		
중소기업	39.0	39.5	41.4	42.3	25.4	18.2	29.1	-13.2	
규모별	소 기업	34.8	35.3	38.0	36.4	21.7	14.5	25.3	-11.1
	중 기업	69.3	71.9	68.6	69.2	38.6	31.6	42.8	-26.4
산업별	경 공 업	34.3	33.7	35.9	36.8	23.1	14.2	26.7	-10.1
	중화학공업	42.2	43.7	45.2	45.8	26.7	20.6	30.6	-15.2
형태별	가공조립형	38.9	44.1	44.6	45.2	25.5	19.6	29.1	-16.1
	기초소재형	46.7	41.3	45.3	43.3	28.0	20.7	32.1	-11.2
	생활관련형	32.4	32.9	34.3	37.2	22.9	14.2	26.6	-10.6

1.1 설비투자 실시 사유

- 2009년도 하반기 설비투자 실시 사유는 상반기와 유사한 응답추이를 보여 현재 생산능력의 유지·보수에 대한 투자가 주가 될 것으로 조사
 - 노후설비 개체 및 보수(48.4%), 기존제품의 생산력증대(38.8%), 차량·선박·공구·비품 구입(38.0%) 등의 순으로 조사
- 신제품 생산,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등의 향후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분야의 투자비율을 높일 것으로 조사
 - 하반기에는 내수경기호전에 대한 기대와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투자비율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도 나타남
 -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상반기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

설비투자 실시 사유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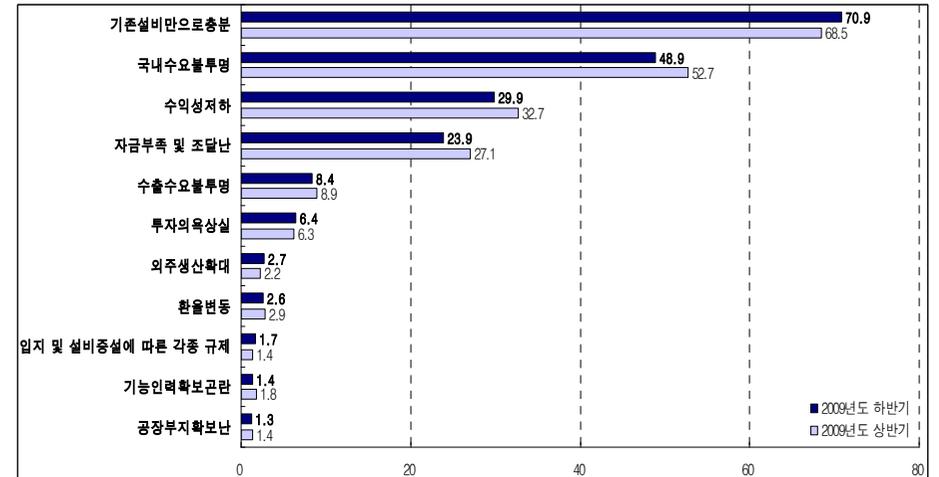


1.2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

- 2009년도에 상반기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미실시 사유를 조사한 결과, 기존 설비만으로 충분, 국내수요 불투명 등 수요부족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
 - 그 다음으로 수익성 저하, 자금부족 및 조달난 등을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 응답
- 하반기에도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수요부족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수익성 저하, 자금부족 및 조달난 순으로 응답

설비투자 미실시 사유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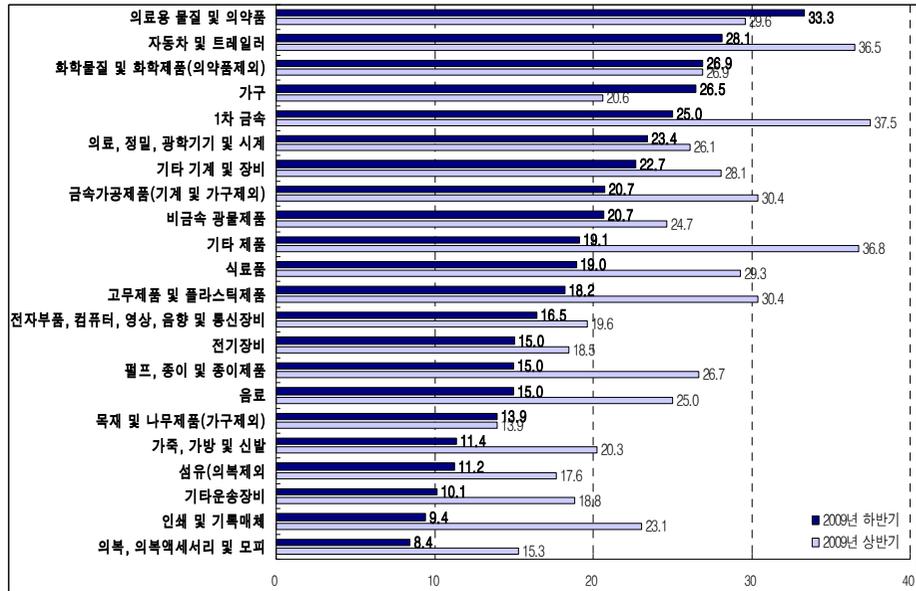


2.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

- 상반기 대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은 거의 모든 업종의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
 - 기타제품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, 인쇄 및 기록매체, 펄프·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은 상반기 대비 10%p 이상 하락할 전망
 -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, 가구제품 제조업의 설비투자 전망은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
 - 중소기업 3/4분기 경기전망에서 호전될 것으로 조사되었던 음료제조업의 경우에도 하반기 설비투자 업체비율이 10%p 감소될 것으로 전망

업종별 설비투자 업체비율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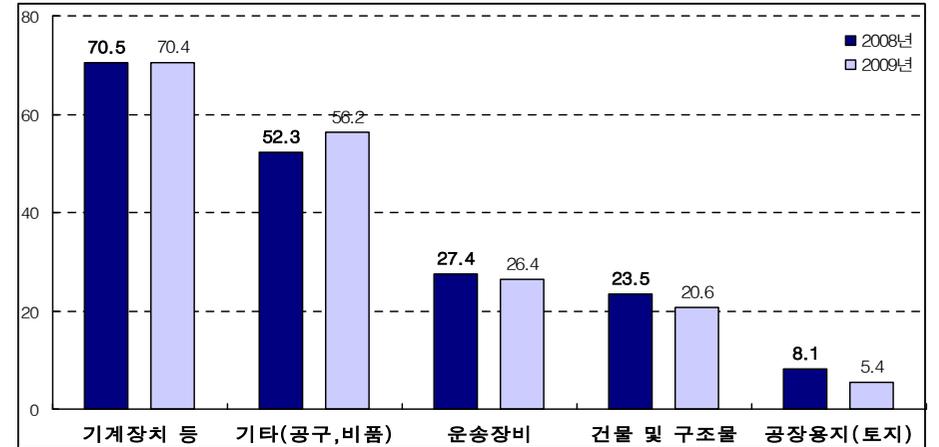
II. 2009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용도 및 자금조달처

1. 설비투자 용도 전망

- 금년도 설비투자 실시(예정) 업체 중 70.5%는 기계장치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
 - 설비투자 실시업체의 투자처는 기계장치(70.5%), 공구·비품(52.3%), 차량·선박 등 운송장비(27.4%), 건물 및 구조물(23.5%), 공장용지(8.1%) 순으로 조사
 - 전년도 대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,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투자는 2.9%p 상승할 것으로 조사
 - 공구, 비품(-3.9%p)에 대한 투자는 전년도 대비 부진할 전망

설비투자 실시업체의 투자처 비율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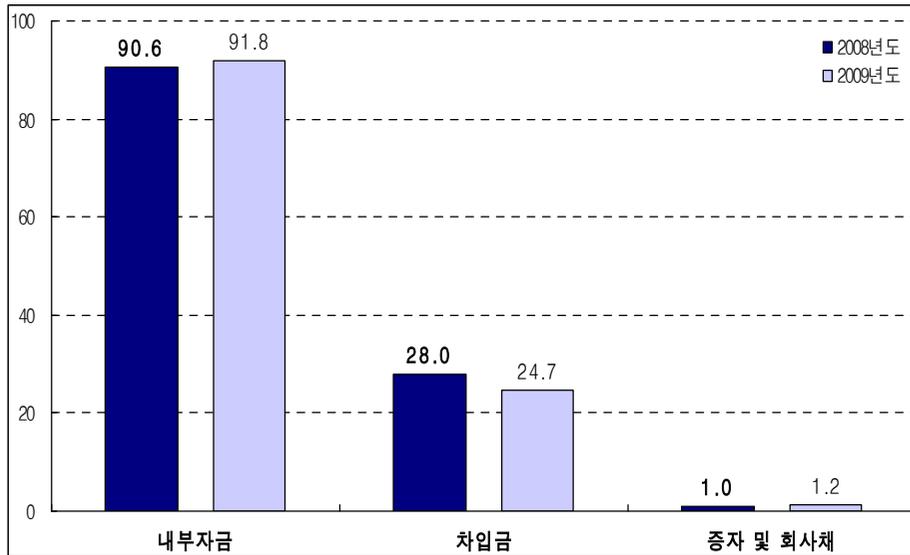


2. 설비투자 자금조달처 전망

- 금년도 설비투자를 실시(예정)한 업체 중 자금 조달방법으로 90.6%가 내부자금을 이용할 계획이며 28.0%는 차입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응답
 - 중소기업업체들은 설비투자 자금조달처로 대부분 내부자금을 이용, 증자 및 회사채는 극히 드물게 발행할 예정이어서 작년과 유사한 응답추이를 보임
 - 전년도 대비 내부자금을 이용할 업체의 비율은 1.2%p 감소할 예정이며, 차입금을 이용할 업체의 비율은 3.3%p 증가할 것으로 전망

설비투자 실시업체의 자금조달처 비율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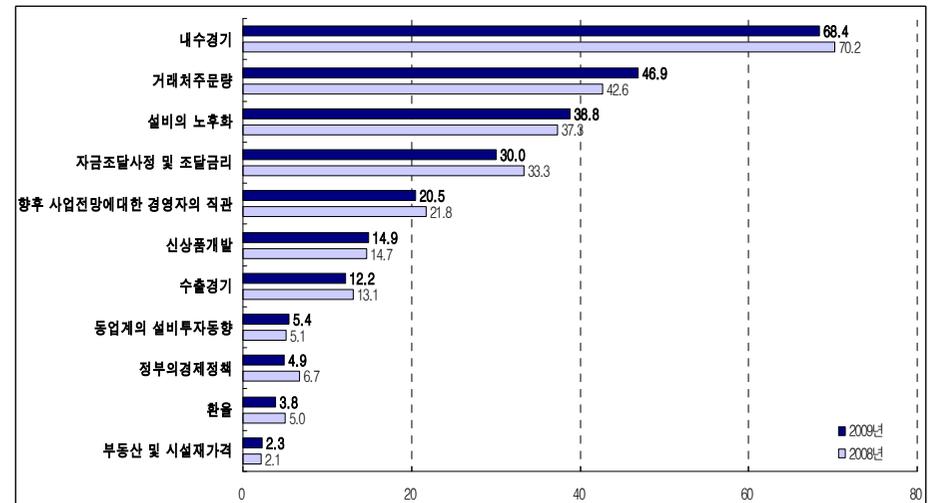
III. 2009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여건

1.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

- 중소기업업체가 설비투자 실시를 결정할 때, 영향을 받는 요소로 내수경기(68.4%), 거래처 주문량(46.9%), 설비의 노후화(38.8%)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
 - 내수경기 판단을 우선하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도 70.2%에서 금년도에는 68.4%로 감소될 것으로 조사
 - 반면, 거래처주문량을 우선하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도 42.6%에서 금년도에는 46.9%로 증가할 전망

설비투자 의사 결정요인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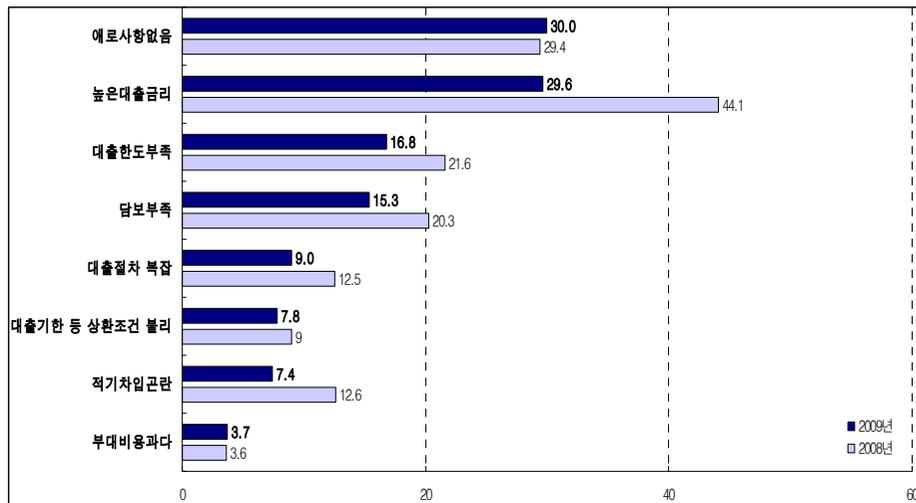


2. 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시 애로사항

- 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시, 애로사항 없음(30.0%)이 가장 높게 조사, 그 다음으로 높은 대출금리(29.6%)가 지적
 -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애로사항 없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, 대출한도부족,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감소
 - 경기침체의 저금리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높은 대출금리가 차지하던 비율은 큰 폭(14.5%p)으로 감소

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시 애로사항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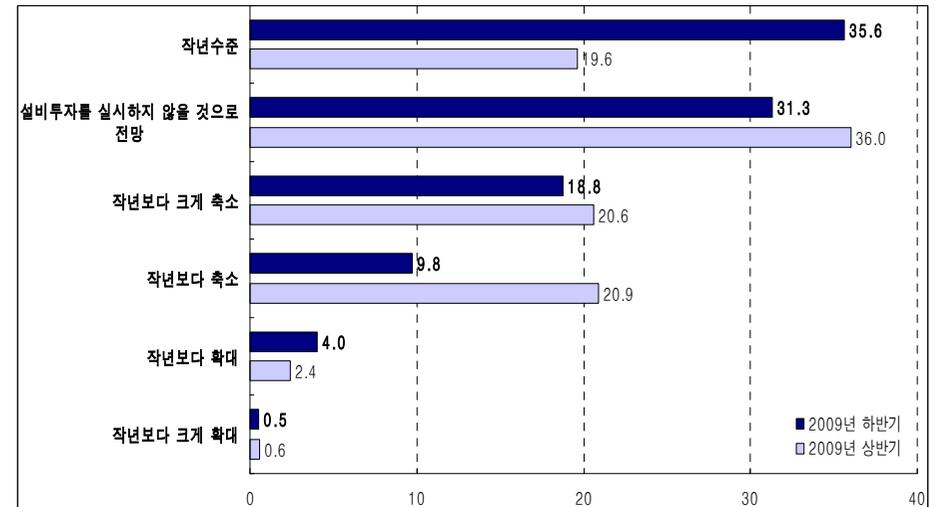


3.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

- 2009년도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전망은 매우 부정적으로 조사
 - 2009년도 하반기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전망 중 확대될 것이라고 답변한 업체는 고작 4.5% 밖에 되지 않음
 - 작년수준(35.6%) 혹은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것(31.3%)으로 전망하는 비율의 합이 66.9%를 차지

동종업계의 2009년 설비투자 전망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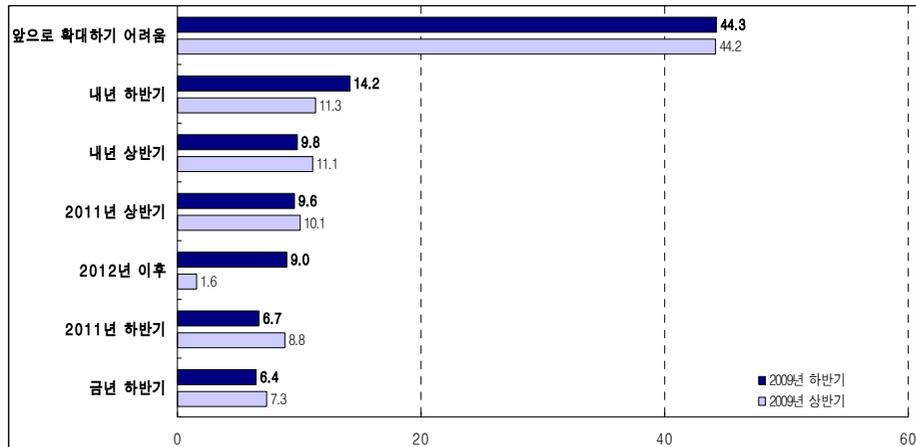
4.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

□ 설비투자의 회복시점에 대한 전망은 44.3%가 앞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는 등 설비투자 확대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

○ 설비투자의 예상시점은 올해 상반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도 보다는 내년, 혹은 2011년쯤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점진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
설비투자확대 예상시점 전망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부록> 조사 개요

□ 조사목적 및 조사결과 공표

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실태를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당행 금융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 조사결과는 당행 홈페이지에 공표

□ 조사지역, 대상 업체 및 응답률

-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종사자수 5~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가운데 업종 및 종사자수를 감안해 3,070개 사업체를 선정
- 2009년 상반기 중소기업 설비투자 응답률 : 82.4%

□ 조사표본 구성

- 모집단 : 통계청 '광공업통계조사'의 종사자수 5~300인 미만 중소기업체
- 표본 : 중소기업 23개 업종 중 담배제조업(16), 코크스·석유정제품·핵연료제조업(23),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(37)을 제외한 20개 업종을 종사자 규모별로 6개 구간으로 세분한 120개 층에서 단순임의추출(목표정도 6.4%)

□ 조사방법 : 임시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작성 후 회수

□ 조사실시 기간 : 2009년 7월 1일 ~ 7월 16일

□ 특수 분류기준

○ 산업별

- **경공업** : 식품제조업(10), 음료제조업(11), 섬유제품제조업; 의복제조업(13),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제조업(15),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; 가구제외(16),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(18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(22),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가구제조업(32), 기타제품제조업(33)

- **중화학공업** :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(17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; 의약품제조업(20),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3), 1차금속제조업(24), 금속가공제품제조업; 기계 및 가구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30), 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

○ 형태별

- **가공조립** : 금속가공제품제조업; 기계 및 가구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30), 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

- **기초소재** :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; 가구제외(16),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(17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; 의약품제조업(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(22),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3), 1차금속제조업(24)

- **생활관련** : 식품제조업(10), 음료제조업(11), 섬유제품제조업; 의복제조업(13),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제조업(15),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(18),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가구제조업(32), 기타제품제조업(33)

○ 규모별

- 종사자수 기준 : 소기업(5~49인), 중기업(50~299인)